



캘리포니아 2026 빈티지 프리뷰: 주 전역에서 기대감 높이는 이른 수확

수확량은 줄었지만 응축된 풍미와 신선함 돋보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2026 년 9 월 29 일 -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2026 년 수확을 맞은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들이 셀러에서 모습을 갖춰 가고 있는 와인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주 전역의 포도밭에서 수확이 평년보다 몇 주씩 앞당겨 진행된 가운데, 일찍 수확된 포도는 응축된 풍미와 개성 있는 아로마, 그리고 신선함이 특징이다. 수확량이 줄고 수확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 한 해였지만, 그만큼 기대할 만한 요소가 풍부한 빈티지다.

3 월의 이례적인 고온으로 생육기가 일찍 시작되었고, 이후 봄철 개화기에 찾아온 비와 강풍으로 캘리포니아 여러 와인 산지에서 착과가 순조롭지 못했다. 재배자들은 포도송이가 가볍고 포도알의 발육이 고르지 않았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작아진 포도알이 지금 셀러와 초기 와인에서 풍미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2026 년은 ‘집중력’의 빈티지가 될 것입니다. 생기 있는 산도와 강렬한 아로마, 한층 날렵한 타닌 구조가 와인의 선명함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에 기반을 둔 테라 와인 컴퍼니(Terah Wine Co.)의 오너 겸 와인메이커 테라 바잘리에(Terah Bajjalieh)의 말이다.

작은 포도알, 응축된 풍미

노스 코스트(North Coast)와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지역에서는 온화한 여름 날씨 덕분에 장기간의 폭염 부담 없이 포도가 익어 갔다. 사우스 센트럴 코스트(South Central Coast)에서는 6 월 말에 수확이 시작되었고, 러시안 리버 밸리(Russian River Valley)의 일부 포도밭은 9 월 중순에 이미 수확을 마쳤다. 기록적으로 이르고 빠르게 시즌이 시작되자, 재배자와 와인메이커들은 포도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수확 일정과 셀러 작업을 조율했다.

“지금까지 겪은 빈티지 가운데 손꼽히게 흥미로운 해입니다.” 나파 밸리(Napa Valley) 크로스비 로먼(Crosby Roamann)의 오너 겸 와인메이커 쉰 W. 맥브라이드(Sean W. McBride)는 이렇게 말하며, 이른 시즌 시작과 온화한 여름 날씨 덕분에 포도가 고르고 일관되게 익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풍미의 응축도는 여러 산지와 품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무적인 특징이다. 멘도시노 카운티(Mendocino County)에 본사를 둔 본테라 오가닉 에스테이트(Bonterra Organic Estates)는 7 월 22 일 피노 그리(Pinot Gris)로 수확을 시작했는데, 이는 2025 년보다 2 주 가까이 이른 시점이다.

“작은 포도밭이 여러 로트(lot)에서 풍미의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른 수확 덕분에 신선함과 자연스러운 균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테라 오가닉 에스테이트의 존 케인(John Kane) 총괄 매니저의 설명이다.

소노마 카운티(Sonoma County)에서는 피노 누아(Pinot Noir)가 올해 빈티지의 강렬함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러시아 리버 벨리에 위치한 바치갈루피 빈야드(Bacigalupi Vineyards)의 니콜 바치갈루피(Nicole Bacigalupi) 총괄 매니저는 올해 피노 누아의 풍미가 강렬하고 색도 예년보다 짙다고 전했다. 그는 “포도밭과 송이가 아주 작았는데, 이런 해에는 대개 응축도가 높아집니다. 올해는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선함과 품종 고유의 개성

생산자들은 응축된 풍미와 더불어 신선함과 뚜렷한 품종 특성도 입을 모아 꼽는다. 센트럴 코스트에서는 파스로블스(Paso Robles) 서부에 자리한 타블라스 크릭 빈야드(Tablas Creek Vineyard)의 론(Rhône) 품종들이 선명한 색과 개성 있는 풍미를 보여 주고 있다. 개화가 일렀던 덕분에, 수확 시기가 앞당겨졌음에도 일부 포도는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나무에서 익을 수 있었다. 이 와이너리의 첫 수확은 8 월 7 일, 소량의 비오니에(Viognier)였다.

로다이(Lodi)와 아마도르 카운티(Amador County) 등지에서 포도를 공급받는 테라 와인 컴퍼니의 바잘리에 역시 레드와 화이트 와인 모두에서 나타나는 신선함에 고무되어 있다. 그는 8 월 5 일 로다이산 산지오베제(Sangiovese)로 수확을 시작했으며, 이는 2025 년보다 20 일 앞선 것이다.

“모든 품종의 풍미가 강렬하고 저마다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품질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타블라스 크릭 빈야드의 파트너 겸 총괄 매니저 제이슨 하스(Jason Haas)의 말이다.

초기 와인들이 차츰 모습을 갖춰 가면서, 풍미의 강도와 신선함, 품종 특성이 조화를 이룬 올해 빈티지는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들에게 낙관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인협회(Wine Institute)는 올가을 중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고 2026 년 와인을 한층 폭넓게 조명한 종합 보고서 「캘리포니아 하베스트 리포트(California Harvest Report)」를 발표할 예정이다.

###

캘리포니아와인협회의 캘리포니아 와인 수출 프로그램 소개

1934 년 설립된 캘리포니아와인협회(Wine Institute)는 미국 와인 생산량의 80%, 미국 와인 수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자들을 위해 미국 농무부(USDA)의 시장 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을 운영하고 있다. 142 개국에 와인을 수출하는 200 개 이상의 캘리포니아 와이너리가 캘리포니아와인협회의 캘리포니아 와인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수출 시장에 15 명의 캘리포니아와인협회 대표를 두고, 30 개국 이상에서 와이너리에 대한 현지 지원과 캘리포니아 와인 시장 개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와인 수출 프로그램은 와이너리 부담금과 미국 농무부 시장 접근 프로그램(MAP)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개성 있는 와인 산지와 세계적 수준의 와인을 길러 내기에 이상적인 기후, 상징적인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현지에서 기른 식재료에 뿌리를 둔 미식 전통을 갖춘 친환경 선도 지역으로서 캘리포니아를 알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와인협회는 해외에서 캘리포니아 와인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활동 외에도, 규제 협력과 무역 장벽 해소, 캘리포니아 와인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국제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calwinexport.com 또는 소비자용 웹사이트 DiscoverCaliforniaWine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인협회 소개

1934 년 설립된 [캘리포니아와인협회\(Wine Institute\)](http://calwinexport.com)는 약 1,000 개의 캘리포니아 와이너리와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정책 옹호 단체다. 와인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와인을 즐기는 문화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州)·연방·국제 차원의 공공정책을 발의하고 옹호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포도 재배를 선도하고, 캘리포니아의 와인 산지를 미식과 와인을 즐기는 여행객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로 알림으로써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환경적 건강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iscoverCaliforniaWine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